

연휴 이후 개장하는 中 증시에 주목

증시 Comment

[국내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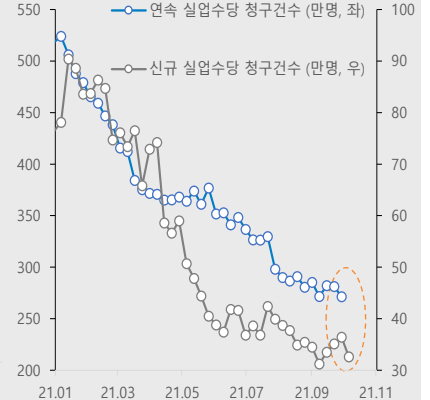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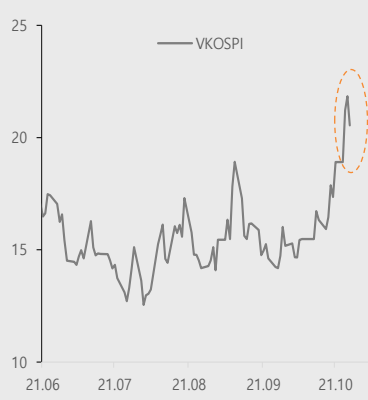
• **기관 대규모 매수세 유입:** 美 부채한도 관련 호재 및 인플레이 우려 완화로 상승 출발.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 속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 수급 부담은 이어졌지만, 6천억원 대 기관 대규모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마감함.

• **반등 기대:** 韓 증시는 글로벌 증시 강세에 따라 상승 압력 받을 것. 단, 중국 동향과 미국 고용보고서를 앞둔 관망세는 불확실성 요인임에 유의.

[해외증시]

• **美 3대 증시 연이은 상승:** 美 증시는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미국 부채한도 협상 유예관련 긍정적 소식 속 상승 마감함.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며 상승세 이어오고 있으나, 9월 고용보고서를 앞둔 관망세 등으로 장 막판 상승분 일부 축소된 것은 특징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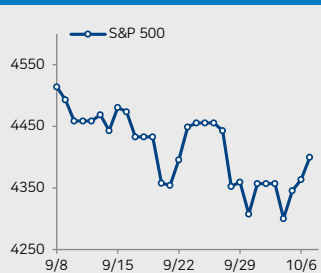
• **실업수당 지표 호조:** 전일 발표된 미국의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2만6천건 기록, 전주 36만 4천건, 예상치 34만8천건을 하회한 서프라이즈 기록. 연속실업수당 청구건수도 271만 4천건 기록, 전주 281만 1천건, 예상치 276만 5천건을 하회함. 경기 호조 기대감 반영하며 국제 금리는 크게 상승하는 양상 나타남.



인플레이 우려 완화, 美 부채한도 협상 기대감으로 전일 변동성지수인 VIX은 하락 마감함. 하지만,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는 유지된 가운데, 변동성 하락폭은 제한된 양상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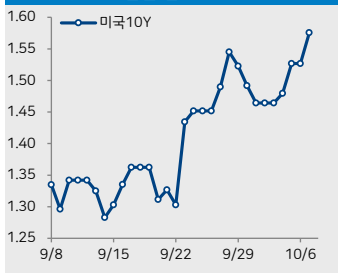
미국의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2만6천건 기록, 전주 36만 4천건, 예상치 34만8천건을 하회, 연속실업수당 청구건수도 271만 4천건 기록, 전주 281만 1천건, 예상치 276만 5천건을 하회하는 등 서프라이즈 기록. 9월 고용 개선 기대 요인으로 작음.

미국 증시



(pt, %)	종가	1D	1W	60D 추이
KOSPI	2,959	1.8	-3.6	
KOSDAQ	953	3.4	-5.0	
S&P 500	4,400	0.8	2.1	
DOW	34,755	1.0	2.7	
NASDAQ	14,654	1.0	1.4	
러셀2000	2,250	1.6	2.1	
유럽	459	1.6	0.8	
일본	27,678	0.5	-6.0	
브라질	110,585	0.0	-0.4	
러시아	1,854	2.2	4.3	
인도	59,678	0.8	0.9	
중국	3,568	0.0	0.0	
반도체(SOX)	3,274	1.1	0.5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



(%, bp)	종가	1D	1W	60D 추이
한국10Y	2.39	-1.3bp	15.0bp	
미국10Y	1.58	4.9bp	8.4bp	
독일10Y	-0.19	-0.5bp	0.5bp	
일본10Y	0.07	-1.0bp	0.0bp	
SHIBOR O/N	2.22	0.0bp	0.0bp	

FX



(%)	종가	1D	1W	60D 추이
KRW	1190.40	-0.2	0.5	
DX	94.22	-0.1	0.0	
EUR	1.1550	-0.1	-0.3	
CNY	6.45	0.0	0.0	
EM통화	55.26	0.0	-0.1	

원자재



(US\$, %)	종가	1D	1W	60D 추이
WTI유가	78.30	1.1	4.4	
브렌트유가	81.95	1.1	4.4	
구리(HG)	4.25	2.3	3.9	
금	1757.90	-0.1	0.1	
비트코인	54,197.75	-1.3	24.8	

주요 종목 주가

(US\$, %)	종가	1D	1W	60D 추이
MS	295	0.6	4.6	
애플	143	0.9	1.3	
아마존	3,302	1.2	0.5	
알파벳C	2,784	1.3	4.4	
페이스북	329	-1.3	-3.0	
넷플릭스	632	-1.1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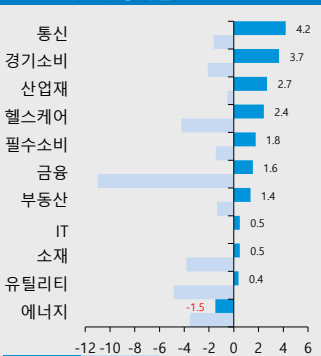
주요 종목 주가

(US\$, %)	종가	1D	1W	60D 추이
마이크론	71	0.9	-0.6	
엔비디아	211	1.8	1.7	
인텔	54	0.4	1.7	
TSMC	111	1.4	-0.7	
JP모건	170	0.6	3.9	
테슬라	794	1.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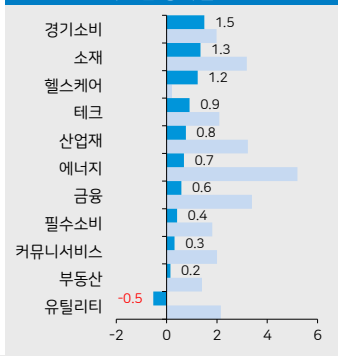
주요 종목 주가

(US\$, %)	종가	1D	1W	60D 추이
엑스모빌	61	0.3	3.1	
듀폰	71	1.1	3.8	
보잉	226	0.7	3.0	
모더나	309	2.3	-19.6	
페덱스	223	-0.6	1.7	
캐터필러	196	2.0	2.0	

코스피 섹터별 등락률 (%)



S&P 500 섹터별 등락률 (%)



전일 발표 주요 경제지표 및 경제 이벤트

국가	지표명	기간	전망치	발표치	이전치
독일	산업생산 SA (MoM)	AUG	-0.5%	-4.0%	1.0%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OCT	348K	326K	364K
미국	연속실업수당 청구건수	SEP	2765K	2714K	2811K

오늘 발표 예정 주요 경제지표 및 경제 이벤트

국가	지표명	기간	전망치	발표치	이전치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	SEP	49.2	-	46.7
미국	고용보고서	SEP	500K	-	235K
미국	제조업임금변동	SEP	25K	-	37K
미국	실업률	SEP	5.1%	-	5.2%

가격지표 작성 기준

* 1D : 전일 대비 등락률

* 1W : 일주일 전 대비 등락률

* 60D 추이 : 거래일 기준 60일 추이

이슈 Comment

그림1. VIX 및 VKOS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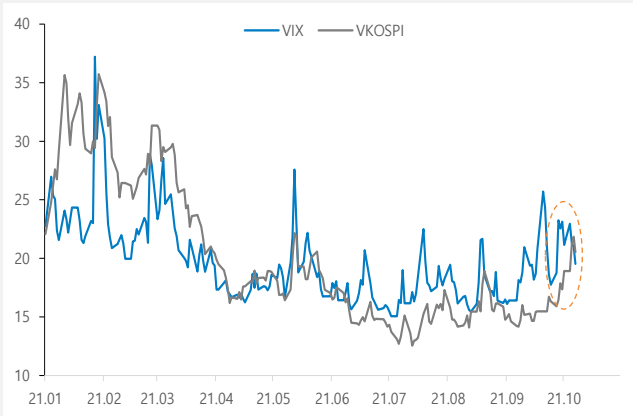


그림2. 코스피 이익 및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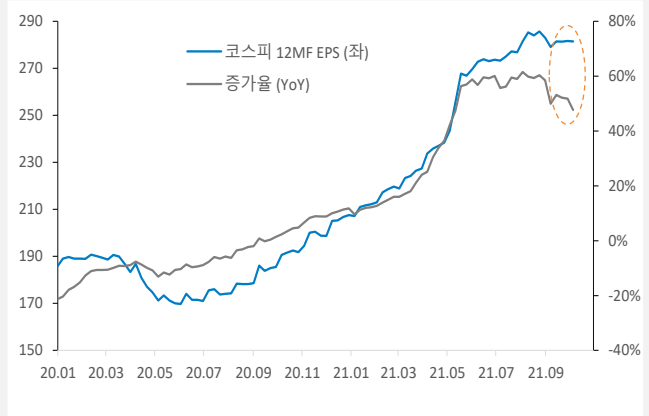


그림3. 코스피 밸류에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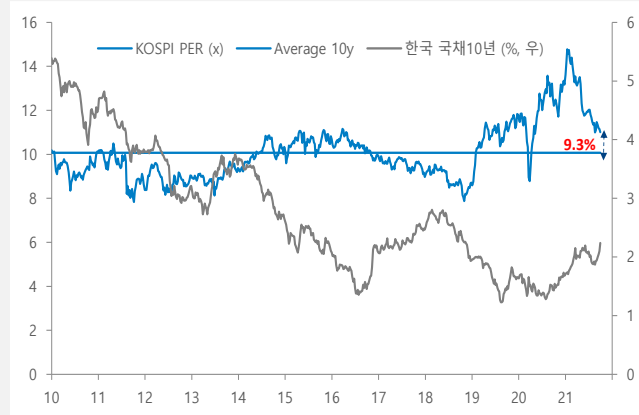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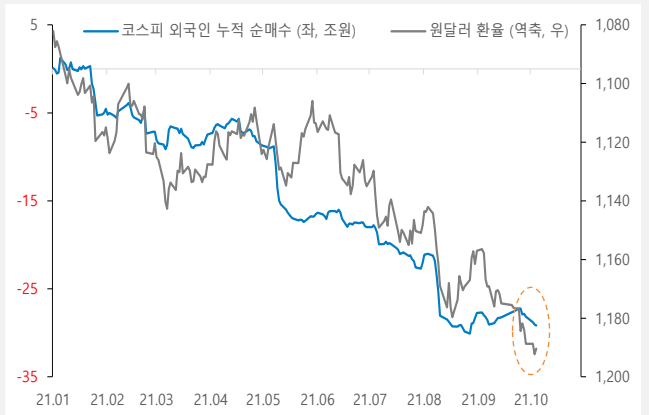


그림4. 원달러 환율 및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 **리스크에 보다 민감한 국내 증시:** 최근 인플레이션, 미국 부채 협상, 미중 갈등, 중국의 헝다발 유동성 리스크와 전력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 리스크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음. 주목할 것은 한국 증시 변동성 지수인 VKOSPI가 미국 증시 변동성 지수인 VIX대비 급등한 것. 불확실성 요소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 나타나고 있음.

▶ **밸류에이션 하락에도 여전히 10년이후 평균 대비 고평가 구간:** 최근 코스피 기업이익 전망을 살펴보면,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의 경우 정체된 흐름 보이고 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음. 이익 전망 내림세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중임. 한편, 밸류에이션 역시 급격한 하락 추세 진행 중임. 연중 14배 중후반까지 증가했던 P/E는 현재 11배까지 하락한 상태. 분명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는 저점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하지만 최근 10년물 금리 상승세와 여전히 10년 이후 평균 P/E 대비 약 9.3% 고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

▶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수급 부담에 유의:** 수급 부담도 여전히 상향. 각종 리스크 속 달러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1,190원 선에 육박하고 있음. 전일 반등했음에도 원화 약세로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미중 갈등, 미국 부채 협상 및 천연가스 공급 기대감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긴 했지만, 미 연준 테이퍼링, 헝다발 유동성 위기, 전력난에 따른 경기둔화 등 중국 관련 리스크 등은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상황. 국내 증시가 리스크에 보다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당장의 추세적 상승 전환 기대에 따른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불확실성 요소들이 해소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시점으로 보이며, 금일 중국 증시가 긴 연휴를 마치고 개장하는 만큼, 그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임.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리서치본부)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